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표류'

나노산단에 3500억 원 들여 설립 예정 ... 문대통령 국정과제 법률 개정·예산 확보 어려워 이명박 정부 때부터 10여년 허송

광주-전남 속원 사업인 국립심혈관질환센터(이하 심혈관센터) 설립이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과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총 3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첨단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업단지 일원 33만㎡(10만평)의 부지에 연구센터, 연구병원(500병상), 재활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원(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근거가 될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여년간 표류했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첫 단추를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개정안 발의가 10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낯잡을 자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12월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검토작업과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올해안에 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미적 미적한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이미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지난 6월 뒤

늦게 용역을 발주한다. 이마저도 유찰돼 용역사가 8월에야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말부터 본격적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확보도 녹록치 않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지매입비와 기본 시설설계비 246억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역시 센터 설립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이런 정황이라면 올해 예산확보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김한중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정부가 심혈관 질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면 정작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 법령 개정, 연구 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센터 설립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심혈관질환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반도 평화 여정 함께 해달라" 문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갈등 11월 10일까지 끝내겠다"

이용섭 시장 회견 ... 공론화 무산되면 직접 결정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오는 11월 10일까지 마무리 하고, 공론화가 도중에 무산되면 시장이 책임지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미 16년 동안 논의했던 2

호선 문제에 대해 또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가 민선 7기에도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컸다"면서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선거공약을 지키거나 중론을 모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가 강성 도시로 비치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 광주의 이미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소수 의견까지 모아내고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켜야 '기압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공론화는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춘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시민권익위원회가 공론화 진행을 맡고 중립적인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의제와 조사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10일까지 공론화를 종료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최종 결론을 내겠다"면서 "2호선 논란을 공론화의 힘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직면하게 될 현안들도 투쟁과 논쟁을 뛰어넘어 대화와 합의로 풀어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를 일부 시민단체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련, 이 시장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서 다수 시민의 뜻을 반영해 결론 내면 권고를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해서 다수 시민의 뜻이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폼페이오 내달 초 방북 ...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

10말·11초 열릴 가능성 북미 비핵화 협상 본궤도 연내 종전선언 기대감 커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내달 평양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입장차로 그동안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관련기사 2면> 폼페이오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회동을 갖고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당초 지난 달 말 평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이 이뤄

지지 않고 있다며 전격 취소, 무산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방북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간에 이뤄진 약속 이행에 관련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약속 이행에 관련한 추가 진전'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포함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카드가 다시 살아남아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함께 비핵화-체제보장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간 빅딜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경우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아주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온 점 등에 비춰 이번 4차 방북 시기는 10월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곧", "매우 가까운 장래"라고 언급했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10월에 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 어느 시점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며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리고 우리는 두 정상에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른 여건을 확실히 만들길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선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면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마감시한을 설정해서 시간에 쫓기듯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전두환, 또 재판지연 꿈수
- 다음달 1일 재판 서울 이전 신청 ▶6면
KIA 마운트 92·93 라인
- 가을야구 성적표 바꾼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경험없다고 아무데서나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꼭** 비교해 주세요.
비교할수록, 품격은 올라가고 장례비는 절감됩니다.
품격은 최고, 가격은 최저
그린장례식장의 자랑입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문충동 876-17)

전속모델 신 구 회장 김영관

400년 수령 소나무 향기 그윽한 곳,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